

불안함에 치솟는 '금값'...한 돈에 30만원 '눈앞'

금값 g당 7만5000원 돌파...2000달러도 목전 코로나궤 재작년 8월 역대 최고치 넘어설까 전쟁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원자재 동반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장기화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금값이 역대 최고치 근접한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불안감에 암호화폐와 주식 등 위험자산 변동성은 커지는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한 돈에 30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종가 기준 국제 금 시세는 g당 7만5600원을 기록했다. 전일(7만4700원) 대비 1.20%(900원) 오른 수치다. 한 돈(3.75g)으로는 28만3500원 수준이다. 지난 2일 기준 온스 당 국제 금 시세는 1937.6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4일 1939.02달러를 기록한 이후 1930달러를 넘어서면서 2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제 금 시세는 지난 22일 g당 7만3200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1년 내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금값은 지난 2일 7만5000원도 넘어섰다.

앞서 금값은 지난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대두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해 8월7일 국제 금 시세는 g당 7만8440원까지 오르는 등 전년 말(6만5740원) 대비 약 8개월 만에 19.31% 올랐다.

이후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역대 최저금리에 국내를 비롯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잠잠해지자 금값은 다시 하락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비트코인이 개당 7000만원대를 돌파하고 코스피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하면서 다시 위험자산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도 분석된다.

올들어 6만원 초반대에서 움직이던 금값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리스크에 다시 반등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최진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6일 일부 러시아계 은행들이 SWIFT에서 퇴출된 뒤 러시아산 제품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와 알루미늄 등 러시아발 리스크에 민감한 원자재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원자재 시장은 러시아발 원자재 쇼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급차질 우려에 에너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러시아발 리스크에 민감한 원자재들의 주가 상승률이 평균 39%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금속세터는 러시아발 리스크 민감도가 낮은 상품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한 데 이어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러시아군이 직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신도 일부 차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기반 시설인 카니브 수력발전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이 장기화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 등에 양국을 빠져나가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정부도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민에 대해 출국 권고를 내렸으며, 6일(현지시간) 기준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래 130만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금 선호 현상이 계속된다면, 국제 금 시세가 지난 2020년 8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올들어 미국의 긴축정책과 국내의 금리인상에 따라 증시가 추축했던 와중에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약세를 더하고 있다. 이들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수요도 안전자산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코스피는 2700선 밑에서 출발, 오전 9시45분께 2,660를 기록했다. 비트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유가와 안전자산인 금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2일 오후 서울 중로구 한국거래소에 골드바가 진열되어 있다.

인 가격도 주말 사이 하락했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 5일 5100만원을 넘어섰던 비트코인도 이날 같은 시간 기준 개당 4768만7000원까지 하락했다.

게다가 금은 여타 다른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생산비중이 적지 않은 원자재 중 하나인 만큼, 전쟁 국면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김준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러시아는 코발트 글로벌 생산의 4%, 구리는 3%, 금은 10%, 다이아몬드 30% 등을 차지한다"며 "양국의 갈등이 계속될수록 점차 넓은 범위의 원자재 시장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

러, 우크라 침공으로 달러 가치 상승...2020년 이후 최고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며 2020년 이후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달러화가 가장 안전한 통화로 여겨지며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비즈니스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지난주 기준 2020년 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급격한 달러화 가치 상승의 이유는 단순하다.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이상 유로를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투자자들도 유로존 공동 통화를 버리고 대신 달러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ING 전략가 프란체스코 페솔레는 "유럽 시장은 단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투자자들, 러·우크라 인접 유포화 보유 안해 "유럽시장, 지리적 노출 때문만이라도 매력 ↓"

대한 지리적 노출 때문만이라도 현재 매력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 증시가 유럽 주식 시장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전쟁과 그 결과로부터 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례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재 우려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에너지 자체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은 비용은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 정도는 덜하다.

지난 4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7만8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게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에도 이달 말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달러 가치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 높은 금리는 특히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더 오래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위기가 닥치면 통화 투자자는 줄어들고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오히려 통화보유량을 늘리려고 한다. 실제 달러는 2021년 전 세계 준비금의 60%를 차지했다.

페솔레는 "시장과 중앙은행들은 달러가 매우 유동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보유하기를 원한다"며 "그것은 매우 튼튼하고 견고한 경제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했다.

달러 강세는 해외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지만, 더 큰 우려는 부채를 달러로 갚아야 하는 신흥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분이다.

러시아의 경제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이 브라질, 터키, 멕시코처럼 더 위험한 시장

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과거에도 달러화 우위의 종말 가능성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이것이 달러화 우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방의 제재를 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체 자금 조달 매커니즘을 개발하려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페솔레는 "달러화 지배력이 줄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세계 은행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다. 한달 전만 해도 미국 주요 석유회사들의 도움으로 하루에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는 등 에너지 무역이 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는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고, 통화와 금융자산이 붕괴되고,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를 비롯해 중립성과 은행 비밀주의로 유명한 스위스마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양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VTB는 제재로 인해 미국 달러를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서방은 또 VTB를 포함한 많은 러시아 은행들을 SWIFT에서 배제했다.

뉴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